

0803(수) 이사야 49-55장 여호와의 종

많은 사람들이 <종이 누구를 가리키는가? >에 집중하지만,
종의 정체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감당할 <사역>입니다.

(42:1-4, 49:1-6, 50:4-9, 52:13-53:12, 61:1-3)

종은 주의 영으로 열방에 <정의>를 베풀고자 부름받았습니다(42:1, 61:1)
단지 개개인의 형편을 돕는 일뿐 아니라 <근본>을 바꾸는 일,
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되는 <하나님 나라>를 건설하는 것입니다.
이로써 <상하고 꺼져가는> 연약한 자들이 회복될 것이며(42:3),
간헐했던 자들이 해방될 것입니다(42:7, 61:1-3, 눅4:16-21).

<여호와의 종>들이 주의 영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때
세상이, 열방이 하나님을 앙모하며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.
그들은 신앙공동체의 종교적 특징과 예식에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,
하나님과 세상을 바꿀만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앙망하는 것입니다.
(41:5, 42:1, 4, 10, 12, 49:6, 60:9, 66:19, 51:5, 눅2:32, 행13:47 참고)

종은 스스로 요란을 떨거나 혹은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.
진리와 의는 그 자체로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(42:2, 4).
하나님은 종을 날카로운 칼과 화살처럼 훈련시키시고(49:2),
학자의 혀와 귀로 날마다 배우고 깨닫게 하십니다(50:4).

그럼에도 하나님이 종을 숨기셨기에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합니다(49:2, 53:1-9).
여호와의 종은 늘 고난과 고통, 모욕과 변민 속에 있습니다(49:4, 50:6).
단순한 구제를 넘어 가난과 간핍, 상처의 근본적인 <원인>을 찾고(61:1),
<하나님의 정의>를 위해 몸부림치기 때문입니다(21-27장, 34-35장 참고).

그럼에도 종은 묵묵히, 그 길을 견지합니다(50:5-10, 53:10, 12).
종의 사역은 결국 존귀케 되며 승리할 것입니다(52:13-15, 53:1).
<여호와의 종>은 믿는 자 개인인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(61:6).
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요, 종으로서 최고의 본을 보이셨습니다.

“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
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
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(벧전2:21)”

나는 <여호와의 종>으로 살고 있습니까?

주님의 영으로, 말씀의 권능으로 내 삶과 주변이 변화되고 있습니까?